

보기 비교형 문제풀이 방법

보기 비교형 문제란 보기가 같이 출제되는 모든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

보기가 제시되는 문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반응의 적절성 여부나 비판적 사고 문제 등이 모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기비교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보기가 제시 안 되는 문제 역시 지문해석과 문제풀이의 측면에서 접근했듯이 보기 비교형 문제도 보기의 해석과 문제풀이방법, 두 방면에서 접근을 해봅시다.

일단 보기의 내용이 하나도 이해 안 될 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보기의 내용은 항상 지문과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때, 보기가 그림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문제를 통해 살펴봅시다.

- 보기비교형 문제풀이 훈련

현금지급기, 휴대 전화, 게임기 등을 보면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메뉴를 누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들 기기들은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의 특정 부위를 누르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별도의 입력 장치를 두지 않고 스크린 위를 눌러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터치스크린이라고 한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댔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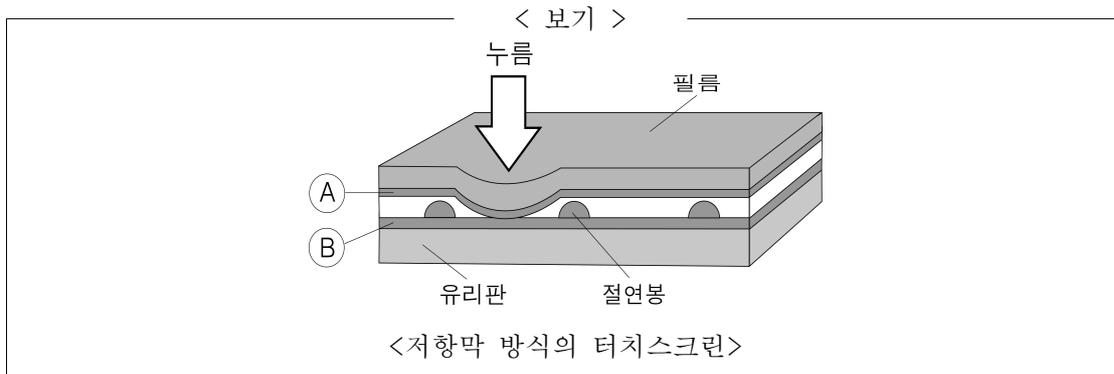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유리의 양면에 얇고 투명한 특수 전도성 금속을 코팅하고 그 부위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팅된 유리 표면을 접촉하면 전류의 일부가 사용자의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면 접촉된 부분의 전류량이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터치스크린은 접촉 위치를 분석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정전기와 같은 미세한 전류량의 변화도 감지하기 때문에 살짝만 접촉해도 반응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접촉하면 사람의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없어 반응하지 않는다.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유리판과 특수 필름 사이에는 절연봉이 있어 유리판과 특수 필름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항막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에 접촉하면 특수 필름의 저항막이 유리판 위의 저항막에 닿으면서 전압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 저항막 방식은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장비나 의료 장비 등에 많이 쓰인다.

기존의 터치스크린은 동시에 여러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점 이외의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출시된 터치스크린은 다중 입력이 가능하고 선이나 면 등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과 면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입력 속도 면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터치스크린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터치스크린의 앞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차세대 영상 장치인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내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구부리거나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면, 전자종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은 터치스크린이 현재보다 미래에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보여 준다.

1. 위 글을 읽고 <보기>에서 '저항막'을 ㉠, ㉡와 같이 설치한 이유를 파악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도 정보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② 어떻게 접촉을 하든지 간에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③ 휴대가 간편해지도록 터치스크린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⑤ 절연봉을 이용해 화면에 선이 정교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지문해석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풀이핵심방법 : 근거문장, 보기 비교형 문제 풀이방법

답 1

보기해석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보기의 내용)

이 보기는 위의 지문에 있는 저항막 방식의 구조를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경우입니다. 위 그림은 저항막 방식의 모형이고 A, B는 저항막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세 번째 단락을 주의해서 보아야겠네요. 일단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는 그대로 저항막 방식의 내용이 나온 3단락에서 근거문장 풀이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보기의 내용) 유리판과 특수 필름 사이에는 절연봉이 있어 유리판과 특수 필름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항막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에 접촉하면 특수 필름의 저항막이 유리판 위의 저항막에 닿으면서 전압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 저항막 방식은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①의 근거문장) 또한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장비나 의료 장비 등에 많이 쓰인다.

- 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도 정보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야.
=장갑을 낀 상태 (동의이형의 원리)
- ② 어떻게 접촉을 하든지 간에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③ 휴대가 간편해지도록 터치스크린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⑤ 절연봉을 이용해 화면에 선이 정교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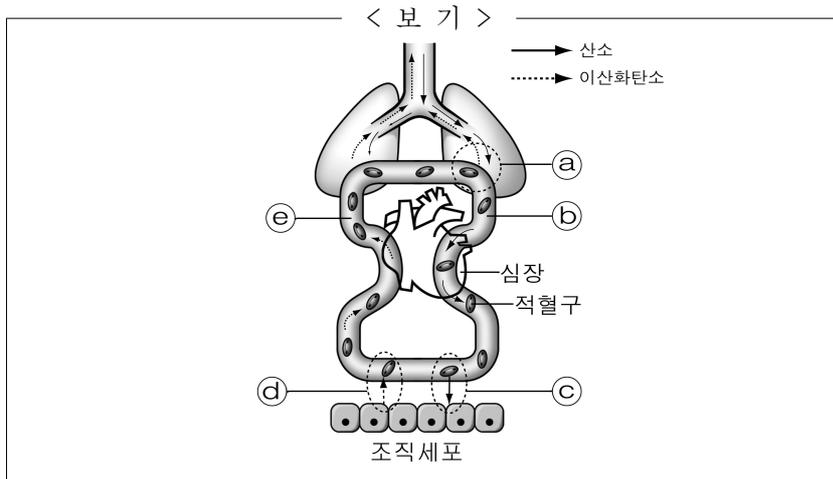
②③④⑤ 모두 나오지 않은 내용임.

약간 까다로운 문제를 하나 더 봅시다.

- 보기비교형 문제풀이 혼련 (선지에 대한 근거문장을 지문과 보기에서 찾으며 문제를 푸시오.)

- ①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숨 쉬기는 동물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활동에 중요한 호흡은 과학적 개념으로 볼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신체의 각 조직세포로 운반된 후 분리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실어 나르는 수송차이다. 헤모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붉은색을 띤다. 헤모글로빈 1분자는 최대로 산소 4분자까지 결합한다.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반응이라고 하며, 그 결합물을 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반면에 각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반응이라고 한다.
- ③ ①포화반응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또한 포화반응은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혈액의 pH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온도도 포화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해리반응은 포화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 ④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면 그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먼저 혈액 내 적혈구로 들어가서 녹아 탄산이 되었다가 수소양이온과 탄산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탄산음이온은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에서는 탄산음이온이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는 탄산이 녹아 있는 사이타와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체외로 배출된다.
- ⑤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고 체외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이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호흡 충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2 <보기>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에서는 적혈구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와 교환된다.
 ㉡ ㉡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1분자에는 최대 산소 4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 ㉢의 과정에서 적혈구로부터 산소가 분리되면 혈액의 pH가 높아지게 된다.
 ㉣ ㉣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적혈구로 들어가면 녹아서 탄산으로 변하게 된다.
 ㉤ ㉤에 들어 있는 혈장에는 탄산음이온이 용해되어 있다.

문제풀이핵심방법 : 근거문장, 보기 비교형 문제풀이방법

답 3

보기해석

위 그림은 매우 낯설지요. 이것은 혈액 속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며 포화와 해리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각 a~e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호흡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②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신체의 각 조직세포로 운반된 후 분리된다. (①의 근거문장)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실어 나르는 수송차이다. 헤모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붉은색을 띤다. 헤모글로빈 1분자는 최대로 산소 4분자까지 결합한다. (②의 근거문장)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반응이라고 하며, 그 결합물을 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반면에 각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반응이라고 한다.

③ ①포화반응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또한 포화반응은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혈액의 pH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온도도 포화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해리반응은 포화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③의 근거문장)

④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면 그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먼저 혈액 내 적혈구로 들어가서 녹아 탄산이 되었다가(④의 근거문장) 수소양이온과 탄산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탄산음이온은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⑤의 근거문장) 폐로 운반된다. 폐에서는 탄산음이온이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된다.(①의 근거문장) 이는 탄산이 녹아 있는 사이타와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체외로 배출된다.(①의 근거문장)

① a에서는 적혈구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와 교환된다. (그림이 폐에 해당)

② b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1분자에는 최대 산소 4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③ c의 과정에서 적혈구로부터 산소가 분리되면 혈액의 pH가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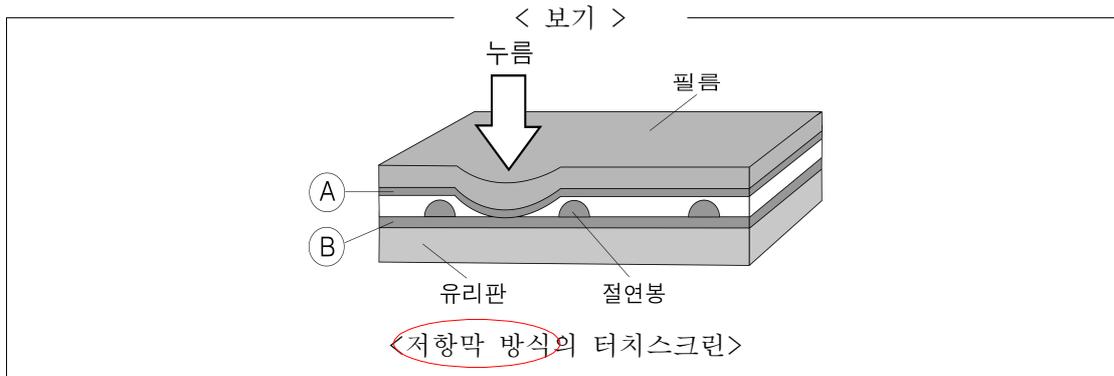
‘분리되면 혈액의 pH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의 해석입니다. 지문에는 해리반응 후의 현상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렇다면 다른 선지들과 비교하여 ③번만이 자신의 해석을 통해야 옳은 내용이 됩니다. 다른 선지들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옳은 선지가 됩니다. 그 경우 근거우선순위(항상 지문, 보기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 옳은 것이다)에 의해 ③번이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④ d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적혈구로 들어가면 녹아서 탄산으로 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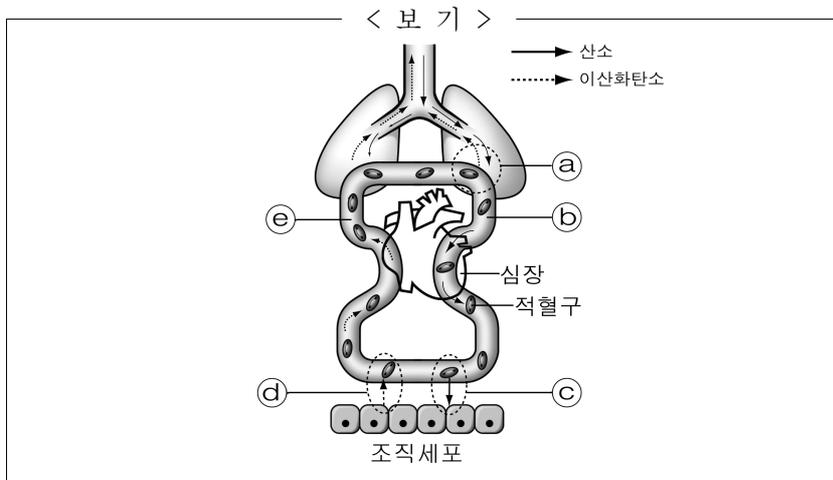
⑤ e에 들어 있는 혈장에는 탄산음이온이 용해되어 있다.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보기가 그림으로 제시된 경우, 보기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지문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지는 문제나 보기에 제시가 된다.

1. 위 글을 읽고 <보기>에서 '저항막'을 ㉠, ㉡와 같이 설치한 이유를 파악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 <보기>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보기를 해석하고 문제풀이는 우리가 앞서 연습한 근거문장 풀이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제 다른 유형의 보기문제를 봅시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기의 내용은 대부분 지문의 한 부분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도 저항막 방식과 호흡의 과정이 보기로 제시가 되었지요.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나 보기에서 지문의 어느 부분을 나타낸 것인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찾아서 보기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보기비교형 문제풀이 훈련 (선지에 대한 근거문장을 지문과 보기에서 찾으며 문제를 푸시오.)

실어증 환자 중에는 억양이나 발음이 정상적이어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종종 의미 없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문법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만, 특이하게도 (㉠)는 것이다. 이 유형의 환자들은 1874년 칼 베르니케의 논문에서 처음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좌뇌의 뒷부분(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일상적인 간단한 명사를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이란 말 대신에 ‘마시는 것’, 또 ‘코’ 대신에 ‘냄새를 맡는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에게 물고기 그림을 보여 주고 무엇인지 말하도록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A] “그것이 뭔지 알지만 말할 수가 없군요. 그건 물속에 있고, 그걸 잡는 건 재미있죠. 휴가에 말이죠. 그건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에 가깝지요. 먹기도 좋구요. 그건 게지요, 아니 아니 게에 가깝기는 한데, 물괴기인가, 맞아요 물고기! 바로 그거예요.”

실어증 환자 중에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이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알려진 이런 유형의 실어증 환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한다. 또한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핵심어만 사용하며,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1861년 폴 브로카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들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좌뇌의 앞부분(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그림에 등장하는 실어증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더듬거리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브로카 실어증 환자로군.
- ②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로군.
- ③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로군.
- ④ 문맥에 맞지도 않는 어휘를 쓰는 것을 보니 좌뇌의 앞부분이 손상된 환자로군.
- ⑤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니 좌뇌의 뒷부분이 손상된 환자로군.

문제풀이핵심방법 : 근거문장, 보기 비교형 문제풀이방법

답 1

보기해석

아, 아들... 대, 대학생...
 그, 그래... 음...영, 영리... 대, 대학...

이 내용으로 보아 위 보기의 내용은 브로카 실어증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을 제대로 완성 못 하기 때문에 - 아래 지문에서 ②의 근거문장으로 일단 보기의 예가 베르니케 실어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브로카 실어증에 대한 내용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됩니다.

실어증 환자 중에는 억양이나 발음이 정상적이어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유장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종종 의미 없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문법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만, (②의 근거문장) 특이하게도 (①)는 것이다. 이 유형의 환자들은 1874년 칼 베르니케의 논문에서 처음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좌뇌의 뒷부분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일상적인 간단한 명사를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이란 말 대신에 ‘마시는 것’, 또 ‘코’ 대신에 ‘냄새를 맡는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에게 물고기 그림을 보여 주고 무엇인지 말하도록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A] “그것이 뭔지 알지만 말할 수가 없군요. 그건 물속에 있고, 그걸 잡는 건 재미있죠. 휴가에 말이죠. 그건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에 가깝지요. 먹기도 좋구요. 그건 게지요, 아니 아니 게에 가깝기는 한데, 물괴기인가, 맞아요 물고기! 바로 그거예요.”

실어증 환자 중에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만 (④의 근거문장)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이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알려진 이런 유형의 실어증 환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한다. (①의 근거문장) 또한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핵심어만 사용하며,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1861년 폴 브로카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들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좌뇌의 앞부분(브로카 영역)이 손상(⑤의 근거문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더듬거리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브로카 실어증 환자로군.
- ②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로군.
- ③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로군.

브로카 실어증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을 제대로 완성 못 하기 때문에)

- ④ 문맥에 맞지도 않는 어휘를 쓰는 것을 보니 좌뇌의 앞부분이 손상된 환자로군.
- 동의어형의 원리 :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만 ⇨ 문맥에 맞지도 않는 어휘를 씀

- ⑤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니 좌뇌의 뒷부분이 손상된 환자로군.

베르니케

다음 문제를 봅시다.

- 보기비교형 문제풀이 훈련 (선지에 대한 근거문장을 지문과 보기에서 찾으며 문제를 푸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등대,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나 깨끗한 공기, 바다 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자원은 재화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세운 등대가 주는 혜택을 특정한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등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소 주인들은 공짜로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소를 몰고 와서 먹이려고 할 것이다. 자기 소를 한 마리 더 들여와 목초지가 점점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목초지를 이용하는 모든 소 주인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초지의 풀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수준 이상의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화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를 공급하여 얻는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초래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

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는 온실 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 수단으로 일관으로 각국에 일정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부여하고, 국가 간 또는 기업이나 기관 간에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고 있다.

- 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보고 있군.
- ②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되면 공유자원은 점점 줄어들겠군.
- ③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유 재산처럼 거래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군.
- ④ 시장 원리에 어긋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군.
- 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없는 기업에는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여 공유자원의 균등한 이용을 유도하려는 의도군.

답 3

문제 풀이 핵심방법 : 동의이형의 원리, 보기 비교형 문제풀이방법, 근거문장

보기해석

일단 이 문제는 보기의 핵심 내용인 ‘이산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지문의 ‘사유 재산권 부여’와 동의 이형의 원리(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 부여’란 자신의 재산처럼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보기가 지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내용인 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근거문장의 원리로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보기 해석의 핵심 : 사유재산권 부여 =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는 온실 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 수단의 일환으로 각국에 일정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부여하고, 국가 간 또는 기업이나 기관 간에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고 있다.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①의 근거문장)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④의 근거문장)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②, ③의 근거문장 - 사유재산권=이산화탄소 배출권 부여)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된다.

- 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보고 있군.
- ②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되면 공유자원은 점점 줄어들겠군.
- ③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유 재산처럼 거래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군.

보기, 지문

지문

- 근데 이 지문은 보기의 내용을 해석 못 해도(사유재산권=이산화탄소배출권) 근거문장과 보기비교형 문제 풀이방법으로 풀 수 있지요. 보기와 지문의 내용이 모두 들어간 내용이 항상 보기비교형문제에서는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이형의 원리 : 사고 팔 수 있는 = 거래

문제풀이 핵심 : 꼼수에 해당하는데, 정 보기의 내용이 파악 안 될 때에는 그저 보기와 선지의 내용이 모두 옳게 들어가 있는 선지를 옳은 것으로 고르십시오. 그렇게 따져도 옳고 그른 선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④ 시장 원리에 어긋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군.

근거문장에 따르면 사유재산권 부여는 통제하는 것과 별개임. 통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없는 기업에는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여 공유자원의 균등한 이용을 유도하려는 의도군. - 나오지 않은 내용

이제 다른 유형의 보기 비교형 문제를 봅시다.

- 보기비교형 문제풀이 훈련 (선지에 대한 근거문장을 지문과 보기에서 찾으며 문제를 푸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라고 한다. OX 퀴즈에서 답을 잘 모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을 따르는 것도 일종의 동조이다.

심리학에서는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낯선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식사를 할 때 여행객들은 대개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식당을 찾게 마련이다. 식당이 북적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의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대개 활발하게 거리 유세를 하며 좀 더 많은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곧 지지자들의 열렬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도 그 후보를 지지하도록 이끄는 정보로 작용한 것이다. 이때 지지자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고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것처럼, 동조 현상은 부정적인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정류장에서 차례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조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 부족 상태에서 좀 더 나은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봄비는 가계를 찾고, 같은 농담을 즐기며, 유행하는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조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5.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상황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옛날에 허영심이 많고 옷 욕심이 유별난 임금이 있었다. 하루는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다며 장인(匠人)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이 임금을 찾아와, 자기들이 만든 아름다운 옷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했다. 솔깃한 임금은 옷을 주문하였고, 며칠 후 사기꾼들은 벌거벗은 임금에게 자기들이 만들어 왔다는 옷을 입혀 주는 시늉을 하였다. 임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 두려웠던 임금은 옷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거리로 나섰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백성들은 벌거벗은 임금을 바라보면서도 이구동성으로 임금의 옷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때 군중들 틈에 서 있던 한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저것 봐요. 임금님이 벌거숭이예요.”

이어서 소년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순진한 이 아이가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 「벌거벗은 임금님」 -

- ① ‘임금’이 옷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거리에 나선 것은 **긍정적 측면에서의 동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② ‘백성’들이 ‘소년’에 대해 동조의 입장을 보인 것은 순진한 ‘소년’의 말이라는 점에 **신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③ ‘백성’들과 다른 행동을 취한 ‘소년’의 태도로 만장일치가 불가능해지자 **동조의 강도가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 ④ ‘임금’이 ‘사기꾼’들을 전문적인 옷 기술자로 여겨 보이지 않는 옷을 보이는 것처럼 처신한 것도 **일종의 동조 행위**로 볼 수 있다.
- ⑤ ‘임금’의 옷이 아름답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백성’들의 심리에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다.

문제풀이핵심방법 : 근거문장, 보기 비교형 문제풀이방법

답 1

보기해석

이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연결입니다. 대략적으로 보기의 내용이 이 내용은 보기의 해석이 따로 필요없지요. 보기의 내용이 동조를 나타낸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다수의 생각 때문에 동조했다는 점, 그리고 소년의 외침 때문에 그 동조가 무너졌다는 것이 지문의 내용(동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와 지문의 내용연결이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 ① ‘임금’이 옷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거리에 나선 것은 긍정적 측면에서의 동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보기 → 지문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근거문장에 있는 긍정적 측면의 동조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선 자랑하려는 것이 줄서기와 같은 행위라 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겠네요. 근거문장에서 긍정적 측면의 동조는 줄서기와 같다고 했으니.

지문(근거문장)	선지의 내용
지문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 정류장에서 차례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이 옷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거리에 나선 것

정류장 줄 서기 ⇨ 자랑

- ② ‘백성’들이 ‘소년’에 대해 동조의 입장을 보인 것은 순진한 ‘소년’의 말이라는 점에 신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보기 → 지문

지문(근거문장)
지문 끝에서 여덟 번째 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순진하다 ⇨ 신뢰감이 높다 (해석)

- ③ ‘백성’들과 다른 행동을 취한 ‘소년’의 태도로 만장일치가 불가능해지자 동조의 강도가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보기 → 지문

지문(근거문장)
지문 끝에서 일곱 번째 줄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 ④ ‘임금’이 ‘사기꾼’들을 전문적인 옷 기술자로 여겨 보이지 않는 옷을 보이는 것처럼 처신한 것도 일종의 동조 행위로 볼 수 있다.

보기 → 지문

지문(근거문장)
지문 아홉 번째 줄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 보기 네 번째 줄 - 임금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 두려웠던 말 바꾸기 :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 ⑤ ‘임금’의 옷이 아름답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백성’들의 심리에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다.

보기 → 지문

지문(근거문장)
지문 여덟 번째 줄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이처럼 근거문장을 찾아 보기와 지문의 내용이 맞게 연관되어 선지에 나왔는지 따지면 됩니다. 다만 1,2번의 경우 올바르게 연관되는 내용인지 따지기 위해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선지의 연관성을 비교하여 더 옳게 연결된 선지를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해석의 비교

①

정류장 줄 서기 ⇒ 자랑

②

순진하다 ⇨ 신뢰감이 높다 (해석)

① 번이 더 내용연결이 안 된다 할 수 있음. (둘 다 근거가 없을 때에는 상식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답을 정할 것!)

무슨 말이나면 1번과 2번은 ‘줄 서기와 자랑하는 것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가?’와 ‘순진한 소년의 말이 신뢰감이 높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둘을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어쩔 수 없이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면 상식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답을 정해야 합니다. 줄 서기와 자랑질이 같다는 것보다 순진한 소년의 말은 신뢰감이 높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비교형 문제풀이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 ① 모든 문제풀이의 근간은 근거문장 풀이법이다.
- ② 모든 보기는 지문과 연관된 내용이 나온다.
- ③ 그림 문제의 경우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보기로 나와 지문과 선지의 내용연결만 근거문장 풀이법으로 따지면 된다.
- ④ 보기의 내용은 대부분 지문의 부분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찾는다. (동의이형의 원리를 활용 - 4번 문제)
- ⑤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 딱 한 부분의 내용이 아닐 경우 보기와 지문의 내용연결이 올바른지 따져본다. - 5번 문제

보기비교형 문제 역시 내용연결이라는 대원칙하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기 비교형 문제는 추론적 사고, 반응의 적절성 여부, 비판적 사고 등 여러 문제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추론을 하든, 반응이 적절한가를 따지든 모두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옳기 때문에 내용연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기 비교형 문제의 경우 내용연결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따져 보십시오.

보기 비교형 문제에서 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옳은 선지	지문, 보기의 내용이 모두 옳게 선지에 제시된 경우 (문장이나 단어가 그대로 나온 경우) - 아래의 예1)의 경우 - cf) 모두 제시된 선지가 없을 때에는 지문, 보기의 내용 중 하나의 내용만이 들어간 선지가 옳은 선지가 됨.
	지문, 보기의 공통된 내용이 선지에 제시된 경우 - 아래의 예2)의 경우 -
옳지 않은 선지	지문,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나오지 않은 경우
	지문,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다르게 나온 경우

예1) 지문 : 터치스크린은 유용한 기술이다.
 보기 : 터치스크린 기술은 앞으로 매우 발전할 것이다.
 선지 : 터치스크린은 앞으로 매우 발전할 유용한 기술이다.

예2) 지문 : 터치스크린은 실질적으로 유용한 기술이다.
 보기 : 터치스크린은 실생활에서 쓸모있게 사용된다.
 선지 : 터치스크린은 실용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지문과 연관된 보기의 성격이 지문의 입장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비판적 사고의 문제를 묻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 어느 부분의 내용과 연계된 내용 인지를 파악하는 것 말고도 하나 더 보기를 해석할 때 염두 해봅시다.

- 보기의 성격은 지문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일치한다.
- 지문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인 경우

예) 지문 : 동조현상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 : 동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 지문과 다르거나 반대의 입장인 경우

예) 지문 : 동조현상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 : 동조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

결국 보기 비교형 문제를 푸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찾는다

둘째 보기의 성격을 파악한다.

셋째 선지와 보기, 지문이 같은 내용인지 비교한다.

이 문제 유형 역시 내용연결이라는 대원칙하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기 비교형 문제는 추론적 사고, 반응의 적절성 여부, 비판적 사고 등 여러 문제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추론을 하든, 반응이 적절한가를 따지든 모두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옳기 때문에 내용연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기 비교형 문제에서 보기는 선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문의 부분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기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지문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인 경우

- 예) 지문 : 동조현상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 : 동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 지문과 다르거나 반대의 입장인 경우

- 예) 지문 : 동조현상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 : 동조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

- 지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 예) 지문 : 동조현상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 : 동조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성향은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이 보기의 내용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됐다면 보기의 내용을 위의 세 경우로 단순히 나누어 보십시오. (대부분 일치, 반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좀 더 보기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보기 비교형 문제에서 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옳은 선지	지문, 보기의 내용이 모두 옳게 선지에 제시된 경우 (문장이나 단어가 그대로 나온 경우) - 위의 예1)의 경우 -
	cf) 모두 제시된 선지가 없을 때에는 지문, 보기의 내용 중 하나의 내용만이 들어간 선지가 옳은 선지가 됨.
옳지 않은 선지	지문, 보기의 공통된 내용이 선지에 제시된 경우 - 아래의 예2)의 경우 -
	지문,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나오지 않은 경우 지문,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다르게 나온 경우

예1) 지문 : 터치스크린은 유용한 기술이다.
보기 : 터치스크린 기술은 앞으로 매우 발전할 것이다.
선지 : 터치스크린은 앞으로 매우 발전할 유용한 기술이다.

예2) 지문 : 터치스크린은 실질적으로 유용한 기술이다.
보기 : 터치스크린은 실생활에서 쓸모있게 사용된다.
선지 : 터치스크린은 실용적인 기술이다.

위 예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기 비교형 문제는 일반 문제보다 더욱 동의이형의 원리가 사용된다.

보기 비교형 문제는 추론적 사고, 반응의 적절성 여부, 비판적 사고 등 여러 문제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추론을 하든, 반응이 적절한가를 따지든 모두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옳기 때문에 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휘 문제풀이 방법

어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유의어를 비교하여 가장 뜻이 비슷한 단어를 찾는 것, 그리고 한자어 어휘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의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대상, 동의어형의 원리, 세부적 의미의 방법이 있습니다.

- 이 문제유형은 유의어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봅시다.

대상:

우리말 어휘는 그 어휘가 쓰이는 대상에 따라 쓰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생명 - 생명활동을 가진 모든 대상

 목숨 - 사람

이런 경우 '개의 목숨'이란 표현은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개'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목숨이란 단어가 쓰이면 옳지 않게 됩니다.

동의어형의 원리 - 이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세부적 의미 -

유도와 유인은 '이끈다'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도는 '방향'의 의미가 추가되고 유인은 '나쁜 쪽으로 이끈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지요.

한자어휘는 그 한자어의 의미를 원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지요. 대신 한자어를 잘 모른다면 그 한자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면 좀더 손쉽게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 일반 유의어 문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1. 밑줄 친 어휘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노사 협상을 통해 파업만은 막아야 합니다.
- ② 추위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 ③ 어둠을 틈타서 공격해 올 적을 막아야 한다.
- ④ 어음을 막지 못해 그 기업은 결국 도산했다.
- ⑤ 땅주인이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그런데 이런 구개음화는 항상 ‘ㅣ’ 모음이나 ‘ㅏ’나 ‘ㅑ’와 같이 ‘ㅣ’ 모음이 포함된 ‘ㅣ’ 계열 이중 모음이 있을 때 ㉡ 일어난다.

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녀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 ② 나는 아침 느지감치 일어나 밥 한 술을 떴다.
- ③ 막내아들의 성공으로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
- ④ 그는 열흘 동안이나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 ⑤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적군에 대항하였다.

문제풀이핵심방법 : 어휘문제풀이방법 - 대상, 동의이형의 원리

답 1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소비하는 것 = 행동

1. 밑줄 친 어휘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노사 협상을 통해 파업만은 막아야 합니다.

파업 = 행동

② 추위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대상)

③ 어둠을 틈타서 공격해 올 적을 막아야 한다.

동의이형의 원리 :

방어

④ 어음을 막지 못해 그 기업은 결국 도산했다.

동의이형의 원리 :

결제

⑤ 땅주인이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세부적 의미 :

물리적으로 막음.

문제풀이핵심방법 : 어휘문제풀이방법 - 대상, 동의이형의 원리

답 1

그런데 이런 구개음화는 항상 ‘ㅣ’ 모음이나 ‘ㅑ’나 ‘ㅓ’와 같이 ‘ㅣ’ 모음이 포함된 ‘ㅣ’ 계열 이중 모음이 있을 때 ㉠ 일어난다.

동의이형의 원리 - 나타나다

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그녀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② 나는 아침 느지감치 일어나 밥 한 술을 떴다.

동의이형의 원리 - get up

③ 막내아들의 성공으로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

동의이형의 원리 - 번성하다

④ 그는 열흘 동안이나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동의이형의 원리 - get up

⑤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적군에 대항하였다.

동의이형의 원리 - 일을 도모함. 일을 시작함.

- 한자어 문제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3.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 ① 흡입(吸入) ② 흡수(吸水) ③ 흡착(吸着)
④ 투입(投入) ⑤ 주입(注入)

이처럼 천장이 ㉡고르지 않은 경우 '확산 반사'가 일어나 소리의 퍼짐 효과가 좋다. B처럼 천장과 바닥을 평행하게 만들면 소리가 '반복 반사'하면서 울리는 '플러터 에코'가 발생한다.

4. ㉡와 관련하여 '고르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고르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균등(均等)하다]
②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다. [⇒ 균일(均一)하다]
③ 물건을 고르게 배치하다. [⇒ 평등(平等)하다]
④ 사람들을 고르게 대우하다. [⇒ 동등(同等)하다]
⑤ 방바닥이 고르고 단단하다. [⇒ 평평(平平)하다]

문제 풀이핵심방법 : 어휘문제풀이방법 - 대상, 문장만들기

답 1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3.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① 흡입(吸入)

세부적 의미 : 안으로 빨아들이다, 들이마시다 예) 청소기가 먼지를 흡입하다. 헬륨을 흡입하다.

② 흡수(吸水)

대상 : 액체나 기관, 단체 등 예) 산하 기관이 본청으로 흡수되다

③ 흡착(吸着)

착 : 붙다

④ 투입(投入)

세부적 의미 : 집어넣다. 대상 : 행동을 할 수 있는 대상 예) 새로운 선수를 투입하다.

⑤ 주입(注入)

세부적 의미 : 집어넣다. 대상 : 물질적인 대상 예) 호르몬을 주입하다.

4,5번은 남이 집어 넣는 의미

문제 풀이핵심방법 : 어휘문제풀이방법 - 대상, 문장만들기

답 3

4. ㉠과 관련하여 '고르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고르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균등(均等)하다]

②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다. [⇒ 균일(均一)하다]

③ 물건을 고르게 배치하다. [⇒ 평등(平等)하다]

문장만들기 예) 각자의 권리가 평등하다.

④ 사람들을 고르게 대우하다. [⇒ 동등(同等)하다]

⑤ 방바닥이 고르고 단단하다. [⇒ 평평(平平)하다]

'물건을 고르게 배치하다'에서 '고르게'는 '여럿이 다 양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의 뜻이므로 '평등'이 아니라 '균일'이 적합하다. 균등(均等) :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 동등(同等) : 등급이나 정도가 같음, 균일(均一) : 한결같이 고름, 평등(平等)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평평(平平) : 바닥이 고르고 환판하다.

설명방식 문제풀이 방법

설명방식 문제풀이방법은 마치 쓰기의 조건에 맞춰쓰기 문제와 같이 먼저 각 설명방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설명방식은 내용구조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설명방식에 대한 근거를 앞의 근거문장풀이법으로 하나하나 찾으며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방식 문제 훈련

현금지급기, 휴대 전화, 게임기 등을 보면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메뉴를 누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들 기기들은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의 특정 부위를 누르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별도의 입력 장치를 두지 않고 스크린 위를 눌러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터치스크린이라고 한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댔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유리의 양면에 얇고 투명한 특수 전도성 금속을 코팅하고 그 부위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팅된 유리 표면을 접촉하면 전류의 일부가 사용자의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면 접촉된 부분의 전류량에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터치스크린은 접촉 위치를 분석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정전기와 같은 미세한 전류량의 변화도 감지하기 때문에 살짝만 접촉해도 반응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접촉하면 사람의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없어 반응하지 않는다.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유리판과 특수 필름 사이에는 절연봉이 있어 유리판과 특수 필름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항막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에 접촉하면 특수 필름의 저항막이 유리판 위의 저항막에 닿으면서 전압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 저항막 방식은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장비나 의료 장비 등에 많이 쓰인다.

기존의 터치스크린은 동시에 여러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점 이외의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출시된 터치스크린은 다중 입력이 가능하고 선이나 면 등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과 면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입력 속도 면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터치스크린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터치스크린의 앞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차세대 영상 장치인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내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구부리거나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면, 전자종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은 터치스크린이 현재보다 미래에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보여 준다.

1. 위 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현황 소개 → 한계 언급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제시
- ② 화제 제시 → 현황 소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향후 전망
- ③ 화제 제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한계 언급 → 향후 전망
- ④ 화제 제시 → 장·단점 설명 → 해결 방안 제시 → 향후 전망
- ⑤ 현황 소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한계 언급 → 해결 방안 제시

문제 풀이 핵심 방법 : 내용구조 파악

답 3

이 문제는 선지의 타당성 조건을 따지며 문제를 풀겠습니다.

① 현황 소개 → 한계 언급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제시

근거 :

- 현재 얼마만큼 쓰이고 있다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야 함.

② 화제 제시 → 현황 소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향후 전망

근거 :

-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현황에 대한 내용이 없음.

③ 화제 제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한계 언급 → 향후 전망

- 중심문장이 그대로 근거임.

④ 화제 제시 → 장·단점 설명 → 해결 방안 제시 → 향후 전망

근거 :

- 장·단점 안 나와 있음. 접촉식은 '어떤 점이 좋지만 어떤 점이 나쁘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함.

⑤ 현황 소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한계 언급 → 해결 방안 제시

근거 :

- 마지막 단락의 중심문장의 내용을 보면 앞서 얘기한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보다는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의 내용이 중심내용임.

- 설명방식 문제 훈련

- (가)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숨 쉬기는 동물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활동에 중요한 호흡은 과학적 개념으로 볼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나)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신체의 각 조직세포로 운반된 후 분리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실어 나르는 수송차이다. 헤모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붉은색을 띤다. 헤모글로빈 1분자는 최대로 산소 4분자까지 결합한다.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반응이라고 하며, 그 결합물을 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반면에 각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반응이라고 한다.
- (다) ㉠포화반응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또한 포화반응은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혈액의 pH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온도가 포화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해리반응은 포화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 (라)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면 그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먼저 혈액 내 적혈구로 들어가서 녹아 탄산이 되었다가 수소양이온과 탄산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탄산음이온은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에서는 탄산음이온이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는 탄산이 녹아 있는 사이타와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체외로 배출된다.
- (마)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고 체외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이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호흡 충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문답 형식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그 과학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 ② (나) :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제시한 후 그와 관련 있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포화반응과 해리반응의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배출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마) : 숨을 쉬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들어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풀이 핵심 방법 : 근거문장, 단어의 집중적 의미 파악

답 3

- (가)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①의 근거문장- 문답, 화제제시)** 숨 쉬기는 동물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활동에 중요한 호흡은 과학적 개념으로 볼 때 (①의 근거문장- 과학적 의미)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나)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신체의 각 조직세포로 운반된 후 분리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실어 나르는 수송차이다. **(②의 근거문장- 역할)** 헤모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붉은색을 띤다. 헤모글로빈 1분자는 최대로 산소 4분자까지 결합한다.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반응이라고 하며, **(②의 근거문장- 관련있는 용어)** 그 결합물을 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반면에 각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반응이라고 한다.
- (다) ①포화반응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또한 포화반응은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혈액의 pH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온도가 포화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해리반응은 포화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난다.
- (라)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면 그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④의 근거문장- 발생)는 먼저 혈액 내 적혈구로 들어가서 녹아 탄산이 되었다가 수소양이온과 탄산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탄산음이온은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에서는 탄산음이온이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는 탄산이 녹아 있는 사이타와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체외로 배출된다.(④의 근거문장- 배출)
- (마)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고 체외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이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호흡 충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①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⑥의 근거문장- 중요성)**

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문답 형식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그 과학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 ② (나) :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제시한 후 그와 관련 있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포화반응과 해리반응의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배출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마) : 숨을 쉬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들어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제찾는 문제, 구체적 사례 적용의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 선지연결, 선지상황조건을 적용한 고난이도 문제풀이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헛갈리는 선지를 제외하기 위한 근거우선순위, 주제우선순위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문제를 풀어 가는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문학 단순문 실전문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화상은 화가들이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흔히 자화상이라고 하면 귀를 자른 고흐의 자화상과 같이 강렬해서 한번 보면 절대 잊기 어려운 그림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자화상이라고 해서 얼굴만 그렸던 것은 아니다.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자화상도 있었다. 인생의 허무와 죽음, 무상 등의 의미를 골동품, 꽃, 음식, 해골 등의 상징물로 표현해 낸 그림들을 보면 화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얼굴 없는 자화상**』의 대표적 사례로는 고흐의 그림을 들 수 있다. ‘파이프가 있는 고흐의 의자[그림(가)]’에서 고흐는 자신의 의자를 아버지가 물려준 담배 파이프와 담배쌈지를 올려놓은 매우 소박한 의자로 그렸다. 고흐는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려고 했을 정도로 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림 속의 ‘의자’는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은 고흐 자신을 상징한다.

‘고갱의 의자[그림(나)]’에는 고갱이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고흐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평소 고흐는 예술가들이 함께 살며 작업을 하는 공동의 거처를 갖기 원했고, 활달하고 남성적인 성격을 지녔던 고갱이 자기의 제안에 동의했을 때 될 듯이 기뻐했다. 말하자면 고흐는 고갱에 대한 애착을 의자라는 상징물로 표현한 것이다. 불타는 초와 책이 놓인 화려한 ‘의자’는 고갱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끼는 고흐 자신을 상징하며, 고갱이 와서 앉아 주기를 바라는 고흐의 수동적이며 여성적인 성향을 보여 준다.



그림 (가) : 고흐, ‘파이프가 있는 고흐의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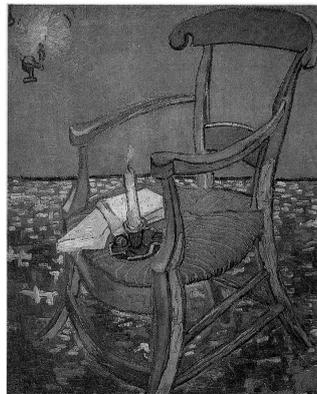


그림 (나) : 고흐, ‘고갱의 의자’

정신분석학자 나게라도 ‘고갱의 의자’가 ‘양성적 갈등’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보았다. 그는 고흐가 화려한 양탄자를 깔고 열 두 송이의 해바라기를 그려 벽에 거는 등 고갱이 머물 방을 정성스럽게 꾸몄던 사실에서 고흐의 심리 속에 감추어진 여성성을 읽어 냈다. 나게라는 고흐가 고갱을 면도칼로 공격하려 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고흐가 강한 성격을 가졌던 고갱을 만나 그의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그 노력이 실패하자 증오심에 사로잡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애증의 복합적인 감정이 고흐로 하여금 ‘고갱의 의자’를 그리게 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얼굴 없는 자화상 속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화가의 심리가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얼굴 없는 자화상은 일반적인 자화상에 비해 화가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더 풍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위 글을 읽고 ‘얼굴 없는 자화상’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가의 깊은 내면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림
- ② 화가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을 담고 있는 그림
- ③ 화가가 타인에게 창작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
- ④ 화가가 성취한 작가적 역량의 정수를 보여 주는 그림
- ⑤ 화가가 자신의 일상적 삶을 반성하기 위해 그린 그림

2. 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체험을 내세우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 ②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각을 적용한다.
- ③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제시하고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 ④ 대상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활용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⑤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덧붙여 논지를 뒷받침한다.

3. 위 글의 내용과 <보기1>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림 (가), (나)를 <보기2>와 같이 감상하였다. 적절한 내용만을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1 >

- 고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고희의 동생 테오는 형이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여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동생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고희는 이를 알고 충격을 받아 세 번씩이나 졸도했다.

< 보 기 2 >

- ㄱ. 그림 (가)의 장식 없는 ‘의자’는 테오를 대하는 고희의 형제애를 잘 보여 주고 있어.
- ㄴ. 그림 (가)에서 고희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심리를 ‘파이프’로 암시하고 있군.
- ㄷ. 그림 (나)의 화려한 ‘의자’에는 아버지와 고개를 바라보는 고희의 시각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군.
- ㄹ. 그림 (나)의 ‘의자’에 담긴 고희의 태도는 애착이라는 점에서 테오에게 보인 태도와 비슷한 면이 있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무용총의 「수렵도」에는, 모필(毛筆, 붓)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선묘(線描)*를 볼 수 있다. 특히 휘영청 휘어지는 물결 모양의 산악 표출이나 달리는 짐승과 이를 쫓는 기마상에 가해진 극히 요약된 선조(線彫)*의 리듬은 모필의 운동감이 아니고는 획득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굵게 때로는 가늘게 나타나는 변화 있는 두께와 유연한 리듬의 선조는 이 모필이 갖는 독특한 매재(媒材)*적 성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모필은 붓을 말한다. 이 붓은 종이, 먹과 함께 문인들이 인격화해 불렀던 문방사우(文房四友)에 속하는데, 문인들은 이것을 품성과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벗으로 여기고 이것들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동양에서는 문인화(文人畫)라 불렀으며 이 방면에 뛰어난 면모를 보인 이들을 문인화가라고 지칭했다. 그리고 ㉠ 문인들은 화공(畫工)과는 달리 그림을, 심성을 기르고 심의(心意)와 감흥을 표현하는 교양적 매체로 보고, 전문적이고 정교한 기법이나 기교에 바탕을 둔 장식적인 채색풍을 의식적으로 멀리했다. 또한 시나 서예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시서화일치(詩書畫一致)의 경지를 지향하고, 대상물의 정신, 그리고 고매한 인품을 지닌 작가의 내면을 구현하는 것이 그림이라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모필로 대표되는 지·필·묵(紙·筆·墨, 종이·붓·먹)은 문인들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알맞은 매재가 되면서 동양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 명나라 말기의 대표적 문인인 동기창(董其昌)은 정통적인 ㉡ 화공들의 그림보다 문인사대부들이 그린 그림을 더 높이 평가했다. 동양에서 전문적인 화공의 그림과 문인사대부들의 그림이 대립되는 양상을 형성한 것은 이에서 비롯되는데, 이처럼 두 개의 회화적 전통이 성립된 곳은 오로지 극동 문화권뿐이다. 전문 화가들의 그림보다 아마추어적인 문인사대부들의 그림을 더 높이 사는 이러한 풍조야말로 동양 특유의 문화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동양에서 지·필·묵은 단순한 그림의 매재라는 좁은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문화를 대표한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필·묵이 단순한 도구나 재료의 의미를 벗어나 그것을 통해 파생되는 모든 문화적 현상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학(修學)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지·필·묵이 점차 자신의 생각과 예술을 담아내는 매재로 발전하면서 이미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사유 매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종이와 붓과 먹을 통해 사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 선묘: 선(線)으로만 그림. 또는 그런 그림.
- * 선조: 가는 선으로 쌓아 올리거나 선을 파 들어가는 조각법.
- * 매재: 매개가 되는 재료.

4.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우리나라 회화의 전통은 문인화에서 비롯되었다.
- ② 모필은 운동감과 유연한 리듬을 나타내는 데 유용하다.
- ③ ‘수렵도’에는 모필이 갖는 매재적 성향이 잘 나타나 있다.
- ④ 명나라 말기부터 화공의 그림보다 문인화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 ⑤ 문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알맞은 매재를 지·필·묵이라고 여겼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년 12월에 만들어진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 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체제를 도입했다.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이 그것이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간 온실 가스 거래 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된 온실 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무 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 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 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 체제를 통해 의무 감축국은 온실 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체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지만 그 이전에도 온실 가스를 감축하면 감축량이 소급 인정되므로 이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

배출권거래제는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이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한 경우 초과분을 다른 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고, 반대로 의무 달성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온실 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제도로 각국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또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일부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자 비준국들은 청정 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2003년 ① 네덜란드가 브라질에서 쓰레기 매립지 메탄가스를 활용한 청정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불과 2년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26개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들 사업이 2012년까지 감축할 온실 가스 총량은 1억 5,153톤이나 된다.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도 2007년 한 해 30조 원이 넘었다. 이제 온실 가스 감축 문제는 환경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온실 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탄소 경제’, ‘탄소 시장’, ‘탄소 펀드’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경제 분야로 변신하고 있다.

7.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온실 가스 감축 비용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
- ② 교토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국가 간 경제 교류 확대이다.
- ③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 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 ④ 교토메커니즘은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 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 가스 감축량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8. 위 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ㄴ. 교토메커니즘을 통한 실적과 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ㄷ.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을 너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ㄹ.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라질은 네덜란드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겠군.
 ② 브라질은 메탄가스 활용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겠군.
 ③ 브라질은 온실 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나라이겠군.
 ④ 쓰레기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사업은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이겠군.
 ⑤ 네덜란드는 온실 가스 감축량을 얻기 위해 메탄가스 활용 사업을 벌였겠군.

1 ① 2 ⑤ 3 ④ 4 ① 5 ⑤ 6 ④ 7 ② 8 ② 9 ③